

도르프 청년마켓 사진집

: Dorf
Momente

2023-2026

DEUTSCHES DORF
in NAMHAE

목차

1. 도르프 청년마켓 이야기	p.6	
2. 도르프 청년마켓 4년의 기록	p.10 p.16 p.58 p.108	2023년, 도르프 청년마켓의 탄생기 2024년, 도르프 청년마켓의 성장기 2025년, 도르프 청년마켓의 안정기 2026년, 도르프 청년마켓의 마무리
3. 셀러 역량 강화 교육	p.124 p.130	2024년, 함께 시작한 첫 걸음 2026년, 더 나은 내일을 그리며
4. 도르프 청년마켓과 함께한 사람들	p.146 p.164 p.168 p.172	참여 셀러 인터뷰 셀러들의 한마디 방문객 한마디 참여 셀러 명단

1

도르프 청년마켓 이야기



▲ 2024 도르프 청년마켓 현장

남해 독일마을 광장에 각기 다른 개성과 이야기를 담은 셀러들이 모여 시작한 도르프 청년마켓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19회 운영하며 누적 관광객 170,348명, 누적 참여셀러 302팀(관내 140, 관외 162)의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도르프 청년마켓에는 남해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다양한 셀러들이 함께하였으며 마켓과 함께 공연, 체험,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2023년 첫 시작 이후 4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셀러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개성과 가치를 담은 상품을 소개하였고, 이들의 열정은 남해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였습니다. 또한, 셀러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선진지 견학, 네트워킹, 전문가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셀러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도르프 청년마켓이 걸어온 여정을 담은 기록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모습, 그리고 도르프 청년마켓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2024 도르프 청년마켓 현장

2

도르프 청년마켓 4년의 기록

- 2023년, 도르프 청년마켓의 탄생기
- 2024년, 도르프 청년마켓의 성장기
- 2025년, 도르프 청년마켓의 안정기
- 2026년, 도르프 청년마켓의 마무리

2 - 1

2023년, 도르프 청년마켓의 탄생기



▲ 2023.10.04.
도르프 청년마켓 현장

도르프 청년마켓이 첫 걸음을 내디딘 2023년.

독일마을 광장에서 처음 열린 도르프 청년마켓은 청년 셀러와 방문객이 만나고 소통하는 새로운 마켓 브랜드이자 만남의 장소로 시작되었습니다. 셀러들은 자신의 상품과 브랜드를 소개하고, 방문객들은 개성 넘치는 상품과 다양한 콘텐츠가 어우러진 특별한 마켓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은 도르프 청년마켓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범 운영의 해였습니다. 총 2회의 시범 운영에 다양한 분야의 셀러들이 참여하여 수 공예품, 식음료, 라이프스타일 상품 등 각자의 개성과 가치가 담긴 상품을 선보였으며, 셀러와 방문객이 직접 소통하며 상품에 담긴 이야기와 가치를 나누는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갔습니다.



▲ 2023.10.04.
도르프 청년마켓 현장

또한 공연,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독일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였고, 청년 셀러와 지역 관광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형태의 마켓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범 운영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도르프 청년마켓만의 운영 매뉴얼을 구축하며 향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2023년은 도르프 청년마켓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해이자, 성공적인 시범 운영을 통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운영 방향을 확인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었습니다.

2023년,
시범 운영을 시작한
도르프 청년마켓



▲ 2023.09.09.
도르프 청년마켓의 첫 시작을 알린 역사적인 순간

2023.09.09. 시범 운영 1회차



◀ 2023.09.09.
지역 뮤지션과 함께 했던
첫 버스킹 공연



▲ 2023.09.09.
관광객 참여 형태의 다양한 체험활동 운영

2023.10.04. 시범 운영 2회차



▲ ▼ 2023.10.04.

독일마을광장이라는 기존 무대를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시도를 선보인 시범 운영 2회차



▲ 2023.10.04.

쾌청한 날씨 덕분에 성공적이었던 시범운영 2회차

2 - 2

2024, 도르프 청년마켓의 성장기



도르프 청년마켓이 본격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2024년.

2024년은 시범 운영을 넘어 정기 운영 체계를 구축하며 도르프 청년마켓이 한 단계 도약한 해였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독일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꾸준히 새로운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셀러들이 참여하여 개성 있는 상품을 선보였으며, 셀러와 방문객이 직접 소통하는 도르프 청년마켓만의 매력을 더욱 확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참여 셀러층이 확대되었고 운영 경험이 축적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마켓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역 축제와 행사, 관광 콘텐츠와의 연계도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도르프 청년마켓의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관광과 청년 셀러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 2024.07.13. 도르프 청년마켓 현장



▲ 2024.07.13. 도르프 청년마켓 현장

이러한 노력은 도르프 청년마켓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매월 이어진 운영을 통해 방문객들에게는 친숙한 마켓으로 자리잡고, 셀러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켓으로 인식되며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2024년은 도르프 청년마켓이 정기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남해 독일마을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성장해 나간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2024년 첫 번째 운영,
5월 4일 도르프 청년마켓



▲ 2024.05.04.

도르프 청년마켓 정기 운영의 첫 발걸음

2024.05.04. 1회차



▲ 2024.05.04. 쉼터 조성



▲ 2024.05.04.

2024년 첫 도르프 청년마켓의 모습



▲ 2024.05.04.

페이스페인팅을 받는 귀여운 어린이



▲ 2024.05.04.

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



▲ 2024.05.04.

경품 뽑기, 사진인화 등 다양한 이벤트에 많은 방문객이 참여하는 모습

2024년 두 번째 운영,
6월 9일 도르프 청년마켓



▲ 2024.06.09.
우천으로 하루 미뤄진 2024 도르프 청년마켓 2회차

2024.06.09. 2회차



▲ 2024.06.09.
다행히 맑게 갠 날씨 덕분에 기분 좋게 운영했던 2회차

2024년 세 번째 운영,
7월 13일 도르프 청년마켓



▲▼▶ 2024.07.13.

무더운 날 방문해 주신 고마운 관광객분들



2024.07.13. 3회차





▲▶ 2024.07.13.
각자의 방식으로 도르프
청년마켓을 즐기는
청년 방문객들



2024년 네 번째 운영,
8월 10일 도르프 청년마켓



▲ 2024.08.10.

8월 더위를 피해 독일마을 광장 아래
오르내리 공원에서 진행한 도르프 청년마켓

2024.08.10. 4회차



◀▲ 2024.08.10.
방문객분들을 맞이할 준비 중



▲ ▼ 2024.08.10.

숲속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



▶ ▼ 2024.08.10.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경품 이벤트



2024년 다섯 번째 운영,
9월 14일 도르프 청년마켓



▲▶ 2024.09.14.

때늦은 더위에도 무사히 개장한
다섯 번째 도르프 청년마켓

2024.09.14. 5회차





▲▼▶ 2024.09.14.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공연들





▲▶ 2024.09.14.

가족 방문객이 도르프 청년마켓을 즐기는 모습





▲▶▼ 2024.09.14.
각자의 취향을 담아
직접 만들어보는
다양한 체험



2024년 여섯 번째 운영,
10월 4일~5일 도르프 청년마켓



2024.10.04.~05. 6회차



◀▲ 2024.10.04.

독일마을 맥주축제와 함께 개최하여 특별함을 더한
2024 도르프 청년마켓 6회차



▲▶
2024.10.04.~05.
야장의 느낌이 솔솔





◀▲ 2024.10.04.~05.

마켓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 다양한 수제 소품과 먹거리들

2024년 일곱 번째 운영,
11월 23일 도르프 청년마켓



▲ 2024.11.23.
선선한 겨울바람과 함께 다시 찾아온
도르프 청년마켓

2024.11.23. 7회차



▲▼ 2024.11.23.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훨씬 풍성했던 도르프 청년마켓 7회차





▲▶ 2024.11.23.
신나는 공연 관람



▲ 2024.11.23.
다양한 장르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버스킹 공연

2024년 여덟 번째 운영,
12월 21일 도르프 청년마켓



▲▶ 2024.12.21.
독일마을광장에도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어요.

2024.12.21. 8회차





▲▶ 2024.12.21.
강풍에도 도르프 청년마켓을
채워준 셀러분들



▲▼ 2024.12.21. 인기만점 겨울 간식





▲▶ 2024.12.21.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밝게 무대를 채우는 뮤지션





2-3

2025년, 도르프 청년마켓의 안정기



도르프 청년마켓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한 2025년.

2025년은 시기와 장소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운영에 집중한 해였습니다. 기존의 매월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관광객 유입이 많은 5월과 10월, 11월에 집중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마켓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운영 기간에 매주 마켓을 개최하여 독일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정기적인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며, 계절과 관광 흐름에 맞춘 운영으로 현장의 활기와 참여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셀러들의 자발적인 추천과 입소문을 통해 전국 각지의 셀러들이 남해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르프 청년마켓은 지역 중심의 마켓을 넘어 전국의 다양한 창작자와 브랜드가 교류하는 장으로 성장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 2025.10.18. 도르프 청년마켓 현장



▲ 2025.10.18. 도르프 청년마켓 현장

이와 함께 도르프 청년마켓의 인지도 또한 꾸준히 확대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운영을 통해 방문객들에게는 남해 독일마을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콘텐츠로 자리 잡았으며, 셀러들에게는 참여를 희망하는 대표 청년마켓 중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2025년은 운영 전략의 변화를 통해 마켓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 단위의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진 한 해였습니다.

2025년 첫 번째 운영,
5월 17일 도르프 청년마켓



▲ 2025.05.17.
화창한 날씨와 함께 새롭게 돌아온
2025 도르프 청년마켓

2025.05.17. 1회차





▶▶ 2025.05.17.

공연을 즐기는 방문객들의 모습



2025년 두 번째 운영,
5월 24일 도르프 청년마켓



▲▶ 2025.05.24.

2025 독일마을 마이페스트와 함께
꾸며진 도르프 청년마켓

2024.05.24. 2회차



▲◀ 2025.05.24.

비가 내려 더욱 꼼꼼히 마켓을
조성하는 모습

▼ 2025.05.24.

비도 오고 흐린 날이지만 많은 관광객과 함께했던 2회차



▲ 2025.05.24.

도르프 청년마켓을 즐기는 귀여운 꼬마 손님들

▼ 2025.05.24.

환한 웃음으로 맞이하는 셀러들의 모습



▲ 2025.05.24.

비 오는 날 함께 만들어진 도르프 청년마켓

2025년 세 번째 운영,
5월 31일 도르프 청년마켓



▲ 2025.05.31.
2025년 3회차 도르프 청년마켓 풍경

2025.05.31. 3회차



▲▼ 2025.05.31.
많은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





▶▶▶
2025.05.31.
마켓 운영 모습





▲ 2025.05.31.
다 함께 따라 부르고 뛰어논 공연



2025년 네 번째 운영,
10월 2일~4일 도르프 청년마켓



▲ 2025.10.02.~04.

독일마을 맥주축제와 함께한 4회차 도르프 청년마켓.
익숙한 광장을 떠나 원예예술촌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진 또 하나의 풍경.

2025.10.02.~04. 4회차



▲ 2025.10.02.~04.

방문객의 발걸음을 이어준 스탬프투어와 다채로운 이벤트

▼▶ 2025.10.02.~04.
특별한 상품 앞에 머무르며
취향을 발견하는 관광객들





2025년 다섯 번째 운영,
10월 18일 도르프 청년마켓



▲▶ 2025.10.18.

선선한 바람과 함께 다시 돌아온 익숙한 풍경

2025.10.18. 5회차





◀▶▶ 2025.10.18.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무료 체험 프로그램





▶▶ 2025.10.18.
독일마을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룬 어쿠스틱·팝페라 공연



2025년 여섯 번째 운영,
10월 25일 도르프 청년마켓



2025.10.25. 6회차



▲▶ 2025.10.25.
화창한 날씨와 기분 좋은
발걸음이 만든 마켓의 활기





◀▲ 2025.10.25.

할로윈데이 특별 체험을 함께 즐기는 가족 방문객들

▼▶ 2025.10.25.

마켓을 구경하는 방문객들의 모습



2025년 일곱 번째 운영,
11월 1일 도르프 청년마켓



▲▶ 2025.11.01.
강풍으로 늦게 문을 열었지만 따뜻한
발걸음으로 채워진 7회차 도르프 청년마켓

2025.11.01. 7회차







▲ 2025.11.01.

가을 감성을 담아 각자의 개성대로 꾸미는 낙엽 키팅



2025년 여덟 번째 운영,
11월 8일 도르프 청년마켓



▲▶ 2025.11.08.
2025년의 마지막 도르프 청년마켓
살살한 날씨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 모습

2025.11.08. 8회차





◀▲ 2025.11.08.
자연스럽게 독일마을의 한 풍경이 된 도르프 청년마켓



◀▶▶ 2025.11.08.
마무리를 함께한
무대 공연



2 - 4

2026년, 도르프 청년마켓의 마무리



2025년 11월 공식 운영을 마무리한 도르프 청년마켓은 많은 셀러들의 재개최 요청과 이별의 아쉬움 속에 2026년 5월, 특별마켓 「아듀(Adieu)! 도르프 청년마켓」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독일 마을을 찾았습니다.

3년간 독일마을 광장을 채워온 도르프 청년마켓은 청년 셀러들에게는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었고, 방문객들에게는 남해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선물해 왔습니다.

아듀(Adieu)! 도르프 청년마켓에서는 다양한 판매 부스와 함께 공연, 체험, 이벤트 등 도르프 청년마켓을 대표하는 콘텐츠를 운영하며 그동안의 여정을 추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함께해 온 셀러들의 이야기를 통해 도르프 청년마켓이 남긴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 2026.05.02. 아듀! 도르프 청년마켓



▲ 2026.05.02. 아듀! 도르프 청년마켓

2026년, 「아듀(Adieu)! 도르프 청년마켓」에서 그동안 쌓아 온 시간들을 하나의 아름다운 장면으로 완성하며 긴 여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공간에서 나눈 인사와 웃음, 서로를 응원했던 순간들은 마켓이 끝난 뒤에도 각자의 일상 속에 오래도록 남아 또 다른 시작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도르프 청년마켓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침표를 찍지만, 청년들의 도전과 지역을 향한 애정은 새로운 무대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듀(Adieu)! 도르프 청년마켓!

다시 만날 그 날을 기다립니다.

2026년 아쉬움을 담은 특별 운영 5월 2일 아듀(Adieu)! 도르프 청년마켓



▲ ▼ 2026.05.02.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마켓을 완성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2026.05.02. 특별 운영



▲ 2026.05.02.

2023~2025년 도르프 청년마켓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 전시



◀▶ 2026.05.02,
열띤 호응을
불러일으켰던 공연들



▲ 2026.05.02.
도르프 청년마켓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토크쇼와 게릴라 시음회

▼ 2026.05.02.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아이템을 선보이는 특별한 순간까지 담은 아류! 도르프 청년마켓



도르프 청년마켓의 주인공들







3

셀러 역량강화 교육

2024년, 함께 시작한 첫 걸음

2026년, 더 나은 내일을 그리며

3-1

2024년, 함께 시작한 첫 걸음



도르프 청년마켓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마켓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참여 셀러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셀러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문가 강연을 통해 마켓 운영 사례와 브랜드 운영 노하우, 셀러로서 필요한 다양한 실무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고 성장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셀러들은 이를 통해 브랜드 운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전라남도 곡성의 대표 마켓인 「뚝방마켓」을 방문하여 선진 마켓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켓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공간 구성과 운영 방식, 상품 진열 방법, 고객과의 소통 방식 등을 살펴보고 선진 운영 사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 2024.11.16. 셀러 역량강화 교육



▲ 2024.11.16. 선진 마켓 답사

이와 함께 셀러 간 자유로운 교류와 네트워킹을 통해 각자의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겪는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운영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감과 응원을 주고받는 과정은 새로운 협업 가능성을 발견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 셀러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실무 역량을 키우고, 셀러들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전문가 강의와 현장 중심의 실습, 셀러 간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마켓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쌓았으며, 다양한 시각과 사례를 접하면서 자신의 브랜드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동기부여를 얻으며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자신감과 가능성을 넓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024년 선진 마켓 답사 「곡성 독방마켓」



▲▶ 2024.11.16.
곡성 독방마켓 견학



2024년 셀러 역량강화 교육



▲▶▶ 2025.01.22.~23.

2024 도르프 청년마켓 참여 셀러 및
2025 예비 셀러 대상 역량강화교육 진행



3-2

2026년, 더 나은 내일을 그리며



2026년, 도르프 청년마켓을 마무리하며 셀러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셀러 워크숍과 선진 마켓 답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셀러 워크숍에서는 참여 셀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강연을 통해 브랜드 운영과 마케팅에 대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배우고,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전시하며 서로의 성장 과정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진행된 선진 마켓 답사 프로그램에서는 밀양의 대표 로컬 마켓인 '느린물결마켓'에 방문해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마켓 기획자의 강연을 통해 로컬 마켓의 운영 철학과 브랜드 구축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밀양의 다양한 로컬 콘텐츠와 공간을 탐방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사례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 2026.05.30. 밀양 로컬 콘텐츠 및 공간 탐방



▲ 2026.03.17. 셀러의 밤

이번 프로그램은 도르프 청년마켓을 마무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셀러들이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며 앞으로의 가능성을 함께 그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통해 각자의 다음 도전을 준비하고, 서로의 내일을 응원하였습니다.

비록 도르프 청년마켓은 막을 내리지만, 이곳에서 맺어진 인연과 함께한 시간들은 앞으로도 셀러들의 여정 속에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며, 언젠가 또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6년 셀러 워크숍 「셀러의 밤」



▲▶ 2026.03.17.

풀비치남해 밀라노홀에서 진행된
남해 도르프 청년마켓 셀러의 밤





▲▼ 2026.03.17.

마켓 기획과 브랜드 운영 경험을 나누는 특별 강연



▲ 2026.03.17.

도르프 청년마켓의 지난 3년을 마무리하는 운영보고



◀▲ 2026.03.17.

기부금 행사와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며 보람찬 워크숍을 마무리하였다.

2026년 선진 마켓 답사 프로그램 「밀양 느린물결마켓」



▲ 2026.05.30.

느린물결마켓 기획자 강연과 로컬 공간 탐방



▲▶ 2026.05.30.
로컬 공간을 구축구석
탐방하는 모습





▲▶ 2026.05.30.

밀양 대표 유적지 영남루 방문





◀ ▲ 2026.05.30.

새로운 시각과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밀양 느린물결마켓

4

도르프 청년마켓과 함께한 사람들

참여 셀러 인터뷰

셀러들의 한마디

방문객 한마디

참여 셀러 명단

4 - 1

참여 셀러 인터뷰

Q. 브랜드 소개

골드버튼

김도현

골드버튼(Gold Button)은 손으로 만드는 가족의 가치와 따뜻한 감성을 담아내는 핸드메이드 가족 소품 브랜드입니다. 남해 독일마을 독일광장에서 열리는 도르프 청년마켓은 지역 청년 창업가와 공예 작가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선보이는 문화마켓으로, 지역의 가치와 수공예의 매력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골드버튼은 이러한 도르프 청년마켓의 취지와 함께하며, 정성스럽게 제작한 가족 지갑, 카드 지갑, 키링 등 다양한 핸드메이드 가족 소품을 선보입니다. 대량 생산이 아닌 한 땀 한 땀 손으로 완성한 제품을 통해 오래 사용할수록 깊어지는 가족의 아름다움과 특별한 가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남해 독일마을의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일상에 오래 남을 가족 작품을 만나보세요.

그린아띠

황정현

유자를 형상화한 핸드메이드 타일 아트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체험과 소품들로 상황에 따라 변화를 주는 핸드메이드 공예工房입니다.

남해79보물섬다이어 주식회사

박해월

저희 남해79보물섬다이어는 남해 독일마을의 매력을 담은 마그넷 오프너, 손수건, 손거울 등 관광객들에게 실용적이면서 관광기념품으로 딱 맞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남해마:트

김미리

남해의 자연과 특산물(유자, 마늘, 시금치 등)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 굿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네 마트처럼 편하게 들릴 수 있는 곳이며 굿즈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토크하는 의미에서 남해마:트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달빛소네트

서민지

달빛소네트는 개성있고 예쁜 수입 원단과 질 좋은 부자재만을 사용해 만드는 감성 패브릭 핸드메이드 브랜드입니다.

문라이트 타로살롱

김영선

기रो에 서 계신 분들에게 손에 작은 무기 하나씩을 쥐어주는 일을 합니다.

비비아나

장아름

저희 비비아나는 남해 도르프 청년 마켓에서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로컬 감성 디저트를 선보입니다. 봄날의 화사한 설렘을 담아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벚꽃 모양 머랭쿠키'와 이웃 도시 사천의 건강한 농산물을 사랑스러운 모양으로 재해석해 바삭하고 고소한 '하트 빵튀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에 지역 상생의 가치를 가득 담아낸 만큼, 이국적인 독일마을 광장을 찾는 관광객분들에게 달콤한 여행의 추억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샌드32

이경삼

샌드32는 남녀노소 누구나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 가득한 멀티샵입니다. 이름만 보고 샌드위치 가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먹거리와 여러 소품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아로마포레스트

이동일

명품 향수 브랜드들 못지않게 만든 60종의 수제 향수입니다. 퍼퓸 타입의 지속성으로 판매 및 재구매가 높은 브랜드입니다.

에벤에셀누름꽃

이경미

지역의 들꽃과 자연에서 영감받아 감성적인 액세서리와 생활소품, 굿즈를 선보입니다.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일상 속에 담아, 오래 간직하고 싶은 힐링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갑니다.

오시다공방

심소희

오시다공방은 남해에서 영감을 얻고, 자연이 준 소재를 활용하여 다시 자연을 닮은 디자인을 빚어내는 1인 공방입니다. 남해에서 직접 재배하고 정성껏 말린 압화(Pressed flower)와 투명한 레진, 그리고 바다가 남긴 조개 등의 자연물을 주소재로 다룹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생동감 넘치는 파도를 구현한 트레이, 꽃의 따뜻함을 담은 압화 손거울, 물감을 더해 선명함을 살린 원목 책갈피 등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일상 속 오브제로 재해석합니다. 모든 작품은 작가의 손길을 거친 핸드메이드로 제작되며, 다양한 소품 판매와 함께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즈음

신윤희

손으로 한뼘 한뼘 정성으로 만드는 제품을 만듭니다. 천으로 만드는 꽃, 인형, 소품, 파우치, 브로치 등 정감 가는 눈웃음이 매력적인 인형과 천으로 만드는 인형 등입니다.

조무락제작소

정용래

조무락제작소에서는 EU 가입 전에 독일에서 사용되던 마르크 동전으로 Rings, Bell, Pendant, Couple Pendant 등을 독일마을과 어울리게 제작하여 도르프 청년마켓에 참여했습니다.

행복한손쟁이

곽옥현

저희는 자연에서 얻은 부드러운 소재를 가지고, 정성 가득한 손바느질 제품을 만듭니다. 15년이 넘는 전시회를 통해 많은 분들과 만나온 곽옥현 작가가 모든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바느질합니다. 눈부신 햇살을 막아주는 예쁜 모자부터, 남해의 풍경을 속 빼닮은 나무 펜던트, 전통 모시로 만든 단아한 차 세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손바느질만의 따뜻함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더 행복하게 채워드릴게요.



Q. 도르프 청년마켓과 함께하게 된 계기

골드버튼

김도현

핸드메이드 가족 소품 브랜드를 운영하며 다양한 지역 폴리마켓과 행사에 참여하던 중 도르프 청년마켓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장터가 아니라 청년 창업가와 수공예 작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고객에게 전하는 공간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남해 독일 마을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방문객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든 가족 제품을 소개하고 고객들의 의견을 들으며 브랜드를 성장시킬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해79보물섬다이나믹주식회사

박해일

남해79보물섬다이나믹는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모여 지구처럼 둥글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젊은 시절 독일로 나가셨던 파독 광부와 간호사분들을 인생의 대선배님으로 깊이 존경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용기가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고, 덕분에 독일마을이라는 공간이 저희에게 더욱 친근하고 소중한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인연과 존경의 마음을 바탕으로 저희는 독일 마을에서 열리는 도르프 청년마켓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다문화가 어우러져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특별한 자리이기에, 저희 팀의 활동과 소망을 나누기에 가장 의미 있는 장소라고 느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향한 존중으로 도르프 청년마켓에 참여하며, 저희 남해79보물섬다이나믹가 다문화 공동체의 연결 고리로서 더욱 성장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도르프 청년마켓에 참여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남해마:트

김미리

남해관광문화재단 SNS를 통해서 도르프 청년마켓 공지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폴리마켓처럼 오프라인 공간에서 남해마:트 제품을 홍보하고 고객님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이 필요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달빛소네트

서민지

남해를 너무 좋아해서 혹시 남해에도 폴리마켓이 있는지 찾아보다가 도르프 청년마켓을 알게 되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샌드32

이경삼

동료 셀러분의 적극적인 추천을 통해 도르프 청년 마켓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남해의 대표 명소 '독일마을'에서 펼쳐지는 마켓이라는 점에서 확신을 가졌고, '이 기회는 놓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주저 없이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아로마포레스트

이동일

폴리마켓에 참여하시는 사장님의 소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지 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곳이었기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벤에셀누름꽃

이경미

도르프 청년마켓이 지향하는 취지와 비전에 공감하며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행사의 목적이 좋아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15회가 넘는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오시다공방

심소희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연히 개최 소식을 접하였는데 마침 행사지가 공방과 인접한 지역이었고, 관광객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껴 기쁜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셀러분들과 오랜 기간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무척 영광이었습니다.

행복한손쟁이

곽옥현

평소 신뢰하는 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추천을 받은 후, 남해관광문화재단의 SNS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며 참여를 결심했습니다. 훌륭한 기획력과 지역 상생이라는 취지에 매료되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최고의 하루

골드버튼

김도현

맑은 가을날 독일마을에 유난히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 가족이 부스에 들러 가족 키링을 구매했는데, 아이가 직접 고른 키링을 너무 소중하게 들고 다니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몇 달 후 같은 가족이 다시 찾아와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다며 다른 제품을 구매해 주셨습니다. 제품 자체보다 고객의 일상에 제 작품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보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날은 판매량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남해마:트

김미리

제일 처음 도르프 청년마켓에 참여 했을때 오셨던 첫 손님이 딱 떠오릅니다! 핸드메이드 파우치를 만지작 하시면서 어떤 게 더 나은지, 어울리는지 추천해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품 추천을 해드리면서 손님이 사가실 때 좋은 하루 되시라고 사탕이랑 책갈피 같은 작은 선물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첫 손님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고객님도 남해에서의 추억을 통해 따뜻한 마음 채워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달빛소네트

서민지

맥주 축제와 함께했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셀러이면서, 축제를 즐기는 관람객이었던 즐거운 순간이었어요. 활기 넘치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라이트 타로살롱

김영선

매주 도르프 청년마켓에 가던 참이었는데.. 앞 주에 어머니가 오셔서 아드님 상담을 했었어요.. 그 다음 주에 이른 아침 그 비바람이 치는 번덕스러운 봄날에 테이블도 준비되기 전에 아드님 손을 잡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날 행사를 할 상황이 아니었는데..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비바람이 쳐서 카드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덩그러니 세 명이서 마주 앉아..상담을 했었습니다.

비비아나

장아름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 온몸이 젖어가면서도 마켓을 지켰던 날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입니다. 곳은 날씨 속에서도 저희 부스를 찾아와 따뜻한 응원을 건네주신 관광객분들 덕분에, 셀러로서 마켓을 향한 진심과 책임 감이 더욱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샌드32

이경삼

2025년 5월 도르프 청년마켓과 마이페스트 축제를 같이 하였는데요~~ 하필이면 이날 비가 오다말다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관광객 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날 계면활성제 아저씨로 유명한 비눗방울 행사하시는 분이 오셨는데..비도 오는데 비눗방울을 엄청 날리셔서 물건에 비눗방울이 묻게 될까봐 우산으로 엄청 방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은 고생스러웠지만 재밌고 제일 기억에 남는 행사였습니다~~

에벤에셀누름꽃

이경미

서울에서 오신 가족분들이 서로에게 어울리는 반지와 브로치, 목걸이를 골라주고, 착용하는 모습들은 작은 꽃밭처럼 화사했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낭만적인 연주, 음악이 흐르는 그 대낮에 가족들은 광장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고, 여행의 소중한 기억 속에 함께하게 되었음이 셀러로서 보람 있었습니다. 셀러로서 보람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즈음

신윤희

바람이 몹시 부는 그 어느 날이 생각나는군요. 테이블이 넘어지고 상품들도 쏟아지고, 그런 와중에 다른 셀러들은 짐을 싸고 그런 와중에도 섭외되어 노래를 불러주시는 공연자분들은 계속 노래를 불러주셔서 장소를 떠날 수 없어 같이 참여한 몇몇 분들과 노래도 따라 부르며 마무리한 그 어느 날. 주최하시는 분들도 어쩔 줄 몰라하셨던 그날, 다들 수고 많으셨죠~~~ 날씨 요정이 도와주지 않았던 그날입니다.

조무락제작소

정용래

독일마을 맥주축제와 연계해서 진행한 회차에 비가 와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전혀 본 적도 없는 셀러님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다른 마켓과는 달리 재단 측에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저는 충남 금산에서 남해까지(192km) 운전하며 참여했던 기억이 제일 머리에 남습니다.

행복한손쟁이

곽옥현

맥주 축제 기간에 있었던 마켓에서 독일마을 목각을 사 가신 손님께서 감사하다고 문자를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잘 어울리신다며 진열하신 사진과 함께 남해가 첫 여행이었는데 덕분에 오롯이 남해를 안고 온 거 같다며 도르프 청년마켓과 더불어 좋은 인상으로 행복한 여행이었다고 장문의 문자를 주셔서 마음 훈훈하고 뿌듯했던 기억이 나네요. 뜻깊고 감사한 하루로 마음에 남아 있네요.



Q. 나에게 도르프 청년마켓의 의미

그린아띠

항정현

첨엔 나에게 주는 소품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울려 가는 게 좋았고 마지막이라고 하니 많이 아쉽네요. 저에게는 잠깐 휴식을 취하는 소품 같은 곳이었어요.

달빛소네트

서민지

도르프 청년마켓은 저에게 힐링이자 여행이자 즐거움이었어요. 아름다운 남해에서 좋은 분들과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문라이트 타로살롱

김영선

사실 곳은 봄 날씨에 먼 길을 가서 짐도 풀어보지 못하고 온 날도 더러 있었어요.. 더우랴..추우랴..냉수에 핫팩까지.. 여러 연령층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었고 따뜻한 관계자분들 덕분에 진짜.. 쫘한 마켓이기도 했었어요.. 두루두루 두고두고 고마운 자리였습니다.

비비아나

장아름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독일마을 광장이라는 좋은 공간에서, 열정 가득한 동료 셀러들과 다정한 관광객이라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 서로 온기를 나누었던 그 모든 시간은 셀러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값진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샌드32

이경삼

중간에 참여해서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을 많이 했던 행사입니다~ 도르프 청년마켓 덕분에 남해를 좀 더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로마포레스트

이동일

청년으로 돌아간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과 말로써 열정을 많이 쏟아낸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이었구요. 앞으로도 독일마을을 자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에벤에셀누름꽃

이경미

관광지에서의 마켓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여행객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며 그들의 여행 이야기와 설렘을 함께 나눌 수 있었고, 매번 새로운 인연과 신선한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만든 작품이 여행의 추억이 되고 기념품이 되어 떠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셀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가족, 연인, 친구들이 함께 작품을 고르고 착용하며 사진을 남기는 모습은 제게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작품 하나를 매개로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에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뜻깊었습니다.

이번 마지막 마켓은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방문객과의 만남 속에서 창작의 가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역의 자연과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추억과 감동을 전하는 셀러로 더욱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마켓 활동을 통해 단순한 판매 경험을 넘어 고객과 소통하는 방법, 지역 자원의 가치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의 취향과 감성을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즈음

신윤희

공방을 하다 보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남해 독일마을에서 도르프 청년마켓은 남해에서 작업하는 저에게 저희 공방(이즈음)을 조금이라도 홍보 할 기회였습니다.

오시다공방

심소희

그동안 여러 행사를 다녀봤지만 도르프 청년마켓은 유독 운영진분들이 행사에 얼마나 진심인지, 또 셀러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지 매번 참여할 때마다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소한 문의 사항 하나부터 친절히 답해주시고, 곳은 날씨 때문에 셀러들의 걱정이 많은 날에도 부스를 열심히 돌면서 안내해 주신 덕분에 늘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무락제작소

정용래

도르프 청년마켓이 77세인 나에게 젊음을 찾아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시 도르프 청년마켓이 부활하면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행복한손쟁이

곽옥현

저는 바느질 강의를 하고 있고 전통 바느질 규방 공예회원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바느질하며 공감하고 더불어 사는게 제 모토인데 현장에서 바로 작품(?) 반응을 보며 피드백도 받고 공감하고 나누고 소통하며 작품 창작에 응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리고 창작활동이 수익으로 연결되니 순환이 되고 더 열정적으로 작품활동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듀여서 많이 아쉬웠어요. 좋은 기회였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

골드버튼

김도현

도르프 청년마켓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가족 제품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확장하며 브랜드를 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고객들이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가족 브랜드"라고 떠올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린아띠

황정현

사전에서 토탈공예 공방을 운영하다 보니 공방에서 새로운 손님맞이를 하고자 해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니 문의 전화 많이 주세요~~^^

남해79보물섬다이어 주식회사

박해월

남해79보물섬다이어 팀은 남해인으로서 남해 독일마을에 깊은 애정을 품고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아지트로서, 독일마을과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는 독일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며 그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권의 이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교육과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남해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다문화 인식 개선과 긍정적인 영향을 확대하는 데 힘쓰며, 다이어 팀원 개인의 역량 강화와 자금심 고취에도 중점을 둘 것입니다. 더불어, 도르프청년마켓과 같은 지역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여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남해 독일마을이 더욱 활기찬 명소로 성장하도록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다이어는 남해에서 다문화와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가고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면서, 모두가 행복한 남해를 만들어 가는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남해마:트

김미리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 스토어(온라인 사이트)도 운영하며 제품 판매도 하고 앞으로 남해군 내에서 진행되는 마켓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남해를 알릴 기회가 생기면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더욱 남해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제품도 새롭게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재밌게 남해를 알리고 싶어요!'

달빛소네트

서민지

즐거웠던 도르프 청년마켓의 기억을 간직한 채 다른 지역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보려 합니다.

샌드32

이경삼

도르프 청년마켓에 참여하면서 판매 스킬이 많이 업그레이드된 것 같습니다~ 남해에서 또 이런 마켓을 열면 무조건 참여할 것 같아요~~

에벤에셀누름꽃

이경미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들꽃과 자연이 가진 이야기를 더욱 다양한 작품으로 개발하고, 관광객들에게 지역만의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행복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지역의 자연과 문화가 가진 가치를 알리고, 방문객들이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감성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창작자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오시다공방

심소희

초창기에 도르프 청년마켓과 함께한 이후로 정말 감사하게도 공방이 너무 바빠졌어요. 덕분에 마지막 회차에는 참여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소비자의 선호도를 직접 파악하고 부스 운영 팁도 많이 얻어 가며 정말 큰 경험을 쌓았네요. 앞으로 조금 덜 바빠진다면 여유를 가지고 다시 여러 행사를 통해 관광객들과 소통하며 남해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즈음

신윤희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작업을 꾸준히 하며 남해 도르프 청년마켓처럼 또 다른 이름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 어떤 날을 기다려봐야죠.

행복한손쟁이

곽옥현

도르프 청년마켓에서 쌓은 노하우로 다른 지역으로 마켓도 나가고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고 관광 상품으로 키워보고 싶어요.



Q. 마지막 인사

골드버튼

김도현

도르프 청년마켓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행복으로 남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도르프 청년마켓은 많은 청년 창업가와 작가들에게 도전의 기회와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함께했던 셀러분들, 운영진분들, 그리고 방문객분들 덕분에 지금의 골드버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인연과 추억을 선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멋진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린아띠

황정현

마지막이라니 너무 슬프지만 다음을 위한 또 다른 도약의 시작이라 생각하고 수고해주신 셀러분들과 남해관광문화재단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남해79보물섬다이아주식회사

박해월

도르프 청년마켓은 셀러와 관광객 모두에게 행복과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고 공감하는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남해마:트

김미리

먼저 도르프 청년마켓에 와주신 모든 고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건을 사고파는 자리이지만 남해에 여행 오신 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남해에 대해서 소개도 해드리고 남해에 관련된 제품도 판매할 수 있어서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애써주시고 셀러들을 배려해 주시는 담당자분들과 업체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도움 주시고 홍보도 같이 해주셔서 더 좋았습니다.

달빛소네트

서민지

정말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준 도르프 청년마켓에 감사드리고, 저희 달빛소네트를 사랑해주신 고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문라이트 타로살롱

김영선

아듀 도르프 행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많이 아쉽고 많이 그리워요.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낯선 이들 속에서 또 자잘한 따뜻함을 느끼기를 갈망해 봅니다.

샌드32

이경삼

도르프 청년마켓이 이제 끝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고객님들이 도르프 청년마켓에 오셔서 이런 행사가 너무 좋다고 셀러인 저에게 말씀해주셨을 때 제가 더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샌드32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면서 제일 고생 많으셨던 아름 주임님 생각납니다~ 주임님도 많이 힘드셨을 건데 항상 웃으면서 셀러분들을 더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외 행사 진행한다고 고생하신 담당자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아로마포레스트

이동일

어디서든 우여곡절이 있는 것처럼 독일마을에서도 역시 바람과 사투하고 고객을 응대했던 것들이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남해 독일마을과 상생할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에벤에셀누름꽃

이경미

스쳐 가는 여행길에서 피어난 인연들이 어느새 3년의 꽃밭이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과의 순간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꽃처럼 남을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의 이름입니다. 3년의 추억을 품고, 꽃처럼 새로운 계절을 향해 다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시다공방

심소희

정말 끝인가요?ㅠㅠ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꼭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릴게요!

이즈음

신윤희

수고해 주신 운영팀 여러분들! 매대 설치해 주시고 다른 어려움이 없나 살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참여해주신 셀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행복한손쟁이

곽옥현

전체적으로 감성적인 마켓으로 연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4 - 2

셀러들의 한마디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덕분에 아이와 함께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갑니다. 특히 시간대별 분위기에 맞춰서 음악을 들려주신 덕분에, 오시는 손님들도 모두 귀가 즐겁고
편안하게 축제를 즐기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심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멋진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성 가득한 행사 덕분에 참여할
때마다 행복한 추억을 가득 안고 돌아갑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에게는 첫 플리마켓이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공연도 너무 신나고 스탬프 모아서 경품 추첨하는 재미
도 쏠쏠했어요! 지루할 틈 없이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만족입니다.
다음에도 꼭 다시 참여하고 싶어요!

행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운영에 힘써 주신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관람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덕분에 전체적인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도르프 청년마켓의 활발한 운영이 독일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주민과 청년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 활성화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더욱 기대됩니다.

갈 때마다 나날이 발전하는 도르프 청년마켓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독일마을의 대표 축제로 오래오래 빛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세요.
늘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날씨도 맑고 화창한 데다가 신나는 공연까지 볼 수 있어서 정말 최고로 즐거웠어요!
기분 좋은 에너지를 잔뜩 충전하고 가는 기분입니다. 덕분에 주말을 완벽하게 보냈습니다!

방문객들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덕분에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고생해 주신 운영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나 셀러들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배려해 주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셀러들과 상생하는 멋진 파트너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매번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다니며 행거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든든한 운영팀
덕분에 이번에도 기운 내서 마켓 잘 마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마켓 때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늘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남해의 푸른 바다와 주황색 지붕이 어우러진, 경치가 참 아름다운 독일마을에서
행사가 개최되어 참여하는 내내 눈이 즐거웠고 힐링이 되었습니다. 이 멋진 공간에서
마켓이 열릴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바뀌어서 오늘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끝까지 책임감 있게 챙겨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운영팀 덕분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곳은 날씨에 고생 많으셨으니, 오늘은 꼭 꼭 쉬세요! 감사합니다.

주임님이랑 스태프분들 진짜 너무 친절하시고 셀러들 하나하나 잘 챙겨 주셔서 감동이었어요!
덕분에 기분 좋고 즐겁게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팀워크를 보여주신
운영팀 모두 정말 감사해요!

담당자분들이 언제나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마켓에 올 때마다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좋습니다. 사실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따뜻한 소통이 아닐까 싶어요.
서로 대우해 주고 기쁘게 도와주는 따뜻한 분위기가 정말 최고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늘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었네요! 올 한 해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다니며
고생해 주신 운영팀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항상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늘 감동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행사 전반에 걸친 짜임새 있고 완벽한 진행 능력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덕분에 참여한 셀러와 방문객 모두가 혼선 없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시간대별로 알차게 꾸며진 공연들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무대마다 관객분들의
집중도가 엄청 높아서 축제 분위기가 더 살아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공연을
앞으로는 조금 더 늘려주시면 마켓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벌써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했네요. 도르프 청년마켓과 함께할 수 있어서
매 순간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정들었던 분들과 헤어지려니 아쉽지만,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반갑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팀의 멋진 다음 기획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듀라니 너무 아쉬워요! 우리 꼭 다시 어게인합시다~^^ 그동안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주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행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르프 청년마켓이 향후에 꼭 다시 개최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역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준 행사인 만큼 다음 시즌으로 꼭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4 - 3

방문객 한마디

독일마을 특유의 이국적인 정취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덕분에 주말 동안 매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켓의 전반적인 기획이 훌륭하여 향후 개최될 행사에도 재방문할 의향이 있습니다.

와, 진짜 마켓장에 볼거리랑 직접 해볼 수 있는 놀거리가 엄청 많아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전혀 심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재밌는 마켓 준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신 분들 다들 너무너무 감사하니당!

남해나 독일마을 온 걸 기념하기 딱 좋은 아기자기한 수공예품 부스가 많아서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친구들 줄 선물도 잔뜩 사고, 예쁜 스낵에서 인생 사진도 많이 건져서 정말 대만족이에요!

이번 마켓 기간에 진행된 여러 무대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은 아이 교육 측면에서도 참 알차았습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다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보기 드문 행사입니다.

정신없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들과 참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가졌네요.
마켓의 활기찬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큰 위로를 받았고, 이런 멋진 행사가 매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플리마켓 셀러분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알찬 이벤트가 돋보였습니다.
골목 구석구석 볼거리가 숨어있어 지루할 틈이 없었고, 독특한 소품들도 많아서 마켓 분위기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들에 참여해 보니 옛날 생각도 나고 동심으로 돌아간 듯해 참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방문객 동선부터 사소한 행사 진행까지 참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웃이 꼭 가보라고 추천해줘서 걸음을 하게 되었는데, 안내원들이 어찌나 친절하게 도와주던지 참 고마웠습니다. 행사 분위기도 밝고 동네가 활기차서 기분 좋게 구경했고, 벌써 내년 마켓이 기다려집니다.

독일마을 마켓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기서만 살 수 있는 물건들이랑 이국적인 전통 음식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어서 아주 굿이었습니다!
스태프분들의 매끄러운 진행과 친절한 응대도 엄지척하고 싶네요.

마켓 중간중간 관람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벤치와 휴식 존이 넉넉히 조성되어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덕분에 부모님을 모시고 왔는데도 다리 아프지 않게 여유롭게 쉬어가며 구경 잘하고 갑니다.

마켓 규모가 커서 방문객이 꽤 많았는데도 주차장 공간이 넓고 확보가 잘 되어 있어서 아주 편하게 주차했습니다. 시작부터 스트레스 없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마켓을 더 기분 좋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남해를 대표하는 웰메이드 마켓인 만큼, 다음번에는 온오프라인 사전 홍보를 대대적으로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남해의 숨은 매력을 더 널리 알려서 전국 각지에서 마켓을 보러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야외 행사장이었지만 방문객들을 위한 그늘막과 쉼터 시설이 곳곳에 아주 넉넉하게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따가운 햇볕을 피해 가며 끝까지 시원하고 쾌적하게 마켓을 즐길 수 있어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켓의 꽃인 무대 공연이 진짜 기대 이상으로 라인업도 화려하고 퀄리티가 대단해서 보는 내내 소름 돋았어요! 신나는 음악이랑 퍼포먼스 덕분에 마켓 분위기 제대로 느끼고 스트레스 다 풀고 가요!

단순히 구경만 하는 평범한 마켓이 아니라,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가 가득해서 참 깊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하나 완성도가 높아 마켓의 가치가 한층 더 돋보였습니다.

종합 안내소의 친절한 안내와 알기 쉬운 배치 덕에 길을 헤매지 않고 편안하게 동네를 둘러보았습니다. 푸른 풍경을 보며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가족들과 행복을 가득 채워 돌아가는 발걸음이 참 가볍습니다.

마켓 위치가 찾기 쉬운 데 있어서 헤매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었어요. 동선 안내 표지판도 직관적으로 잘 설치되어 있어서 길 잃어버리는 일 없이 마켓 구석구석을 아주 편하게 구경했습니다.

마켓을 구경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모두 유럽 여행에 온 것처럼 이국적이고 예쁘게 잘 나와서 인스타 감성 뽐뽐이에요. 일상에서 벗어나 제대로 힐링할 수 있는 멋진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켓을 찾은 인파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구역 전체가 쓰레기 하나 없이 아주 정돈되어 있어 쾌적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방문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깔끔하게 관리된 행사 환경 덕분에 끝까지 기분 좋게 머물렀습니다.

학교 친구들이랑 주말에 놀러 왔는데, 평소에 먹기 힘든 전통 독일식 빵이랑 신기한 디저트들이 많아서 진짜 신선했어요. 친구들이랑 벤치에 앉아서 맛있는 빵 나눠 먹으며 재밌게 놀다 갑니다!

4 - 4

참여 셀러 명단

가족공방환

골드버튼

그린아띠

기록의발

깜냥공방

꼬맹이스토리

나의작은숲속

남해79보물섬다이아주식회사

남해8일장

남해마:트

남해어판장

네코나매

다랭이팜

달빛소네트

달콤상콤까망이네

도깨비여왕사주타로

들러리움야생화

뜻밖의수확

라벨라

라운제나

루베르루나

리사리본

모인모인

문라이트타로살롱

미유즈

민트블루컬트

바래협동조합

발사믹식초보물초

별별공작

본하우스

블링

비텐스

비비아나

비즈레터

샌드32

소담도담

소품공작소

솜샤벳

수미진

수희마켓

숲속공방

스타선글라스

실터

아로마포레스트

아트포레스트

엄마의옷장

에벤에셀누름꽃

예삐네

오늘도향수

오시다공방

오시다남해

오실재

우도식품	토브로컬
이빠요핀	트리퍼
이음새:입다	티라와흙쥬노리
이즈음	플로마리
인형숯핸드메이드	해늘찬치즈
자연미공예	해차네책방
제이라운지	행복베이커리
조무락제작소	행복한손쟁이
준조양조	향담시루
지음	헬스밴드
차차보부상	화영인남해
카페샌드	b급상점



보물섬잡화점

영남한수정

도리포 청년마켓

도리포 청년마켓
DEUTSCHES DORF im NAMHAE

도리포 청년마켓
DEUTSCHES DORF im NAMHAE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제주시청, 지역관광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아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도리포 청년마켓
DEUTSCHES DORF im NAMHAE

2-106706
등록

2023-2026

DEUTSCHES DORF
in NAMHAE

도르프 청년마켓 사진집
: Dorf Momente

Organized By

남해군관광문화재단

Directed/Designed By

베르데베르데, 이하늘

이 책은 남해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도르프 청년마켓을 아카이빙한 사진집입니다.
저작권 법에 의해 국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